

수젠텍, 중기부 '2023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 지원기업 선정

- ▶ 강소단계 선정된 수젠텍...최대 2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연구 고도화할 것
- ▶ 이번 지원을 기점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할 계획

<2023-04-05>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기업 수젠텍(253840, 대표이사 손미진)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2023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원기업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2023 글로벌 강소기업1,000+ 프로젝트'는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촉진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동안 선정 절차, 일정, 기준 등이 모두 달랐던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제도를 통합해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수출액 규모별로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해외 마케팅 및 금융 관련 우대를 제공받을 예정이다. 수출액 규모는 유망, 성장, 강소, 강소+의 4단계로 구분되며, 수젠텍은 강소단계로 선정됐다.

강소단계(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 선정 기업인 수젠텍은 앞으로 전용 R&D 트랙을 통해 연구개발비(4년간 최대 20억 원)를 지원받아 회사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선정기업은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를 발급받아 수출 물류비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수젠텍 관계자는 "수젠텍은 지금까지 선도적 기술력을 기반으로 알레르기 진단 장비 및 시약을 비롯한 현장진단 검사 시스템, 개인용 홈테스트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등 다양한 체외진단 기기를 고도화하는데 집중해왔다"며 "최근 슈얼리 스마트 FDA 허가와 알러지 진단 장비의 CE-IVDR 인증 획득을 받은 상황으로 이번 선정을 통해 글로벌 신시장을 창출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해외마케팅 서비스부터 수출금융 및 보증지원 등까지 재무적 측면까지 정책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향후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